

희망 고문을 중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때이다!

대학본부는 희망 고문을 중단하라.

작금의 대구대학교가 직면한 현실은 엄중하다 못해 붕괴의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 지역과 전국을 가리지 않고 오르내리고 있는 언론보도를 비롯해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본교의 입학생 등록률을 확인하며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서 대학공동체 존속의 문제에 다다랐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중론이다. 대학은 지난해 하반기 수시모집 지원율을 마주하고는 편입생 충원을, 이번 해 들어서서 수시모집 등록률 앞에서는 정시모집 충원을, 정시모집 등록률이 발표되고서는 추가모집에서 충원될 것이라고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모집의 등록률 경과를 대하고는 내년에는 이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입장에 대해 특히 직원사회에서는 대학공동체를 위한 선의의 낙관론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으며 신입생 모집 업무에 건강과 가정도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내외에서 인식하고 예상했던 현실은 대학의 낙관론과 무관했고, 마치 이러한 인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학의 존속에 치명적 결과로 나타났다. ‘나’와 ‘우리’만 모르는 현실이 있던가! 외면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실재가 달라지던가! 허무맹랑하기까지 한 ‘희망 고문’을 중지하기 바란다. ‘나’와 ‘우리’를 속인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꾸는 꿈이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은 다시금 대학의 실패한 정책과 이로 인한 대학 현실의 비관적 전망에 대한 정직한 반성을, 아울러 본 실패에 대해 전면적으로 일소하는 즉각적 실천을 촉구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때이다.

수도권 대학들조차도 예측된 대학환경, 즉 신입생 유치의 난관을 극복하려고 이미 편제개혁, 정원조정 등을 시행했지만, 우리대학은 근년 간의 입학생 모집 현실에서 고전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개혁과 조정을 방기하거나 퇴행시킨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대학은 구성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제안하고 촉구한 편제조정에 대해서도 학과(부)의 협조나 외부환경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고, 대학본부가 구성원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오늘의 입학생 모집 결과에 대한 책임의 핵심이라는 사실마저도 구성원과 외부환경에 전가하려 한다면 경영능력의 문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간 우리의 경쟁대학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대학들이 갖추고 있는 편제를 한 번이라도 살펴봤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경영의 의지가 있다면 구성원들을 설득하여 생존과 발전의 길을 제시하고 함께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의 각종 이견 표출에서도 법인을 탓하기 전에 법인을 설득할 준비와 노력을 기했는가를 자문해 보기 바란다. 과거 임시이사체제에서 총장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사진을 설득하여 학원과 대학을 경영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최근 ‘인사파동’

으로 일컬어졌던 직원 정기인사에서 세 번에 걸친 인사위원회와 제청안이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점은 사전 미협의 혹은 부실이었음을 모르는가? 설명과 설득은 자질을 넘어서서 능력과 의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를 상실했다면 책임의 주체와 영역의 문제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법인은 대학을 관할할 의지가 있는가!

전대미문의 입학생 등록률 앞에서, 대학공동체의 붕괴를 몸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구성원들에게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대구대학교에 책무를 다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지 알 수 없다. 본 노동조합은 지난 30년간 학원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 물심양면의 성원과 풍찬노숙의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며 투쟁해 왔기에 그 어떤 구성원보다 현 정규이사체제를 반기고 기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학원의 안정이 대학의 존속과 발전, 합리성과 민주성을 담보해 줄 것이라고 직원사회는 희망해 왔지만, 과연 현재까지 정규법인이 과거 임시체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제시하고 지도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누구의 법인인가 등을 질문하고 싶다. 입학생 모집 결과를 비롯한 대학의 경영 및 생존을 위한 법인의 역할에 대해 직원사회의 불만과 자괴감을 법인은 헤아리고 있는지 노동조합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인 역시 구성원의 생존터가 붕괴되는 현실에 대한 원인 및 과정,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에서 핵심임을 밝히며,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에서 이반된 법인의 구성원이 있다면 깊은 성찰과 실천을 촉구한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우리 생존터에 대한 초유의 위기가 불행한 결과로 혹은 온전하게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경계하지만, 안일한 인식과 막연한 희망 고문으로 ‘나’와 ‘우리’를 기만하는 언동 또한 배척한다. 본 노조는 아직도 ‘나’는 안전지대이며 안전한 시간을 헤아릴 수 있다며 공동체의 미래를 잘라버리는 反공동체적 태도에 대해 자기성찰을 요청하면서, 대학본부와 법인이 입학생 모집 결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숙고하여 명확히 해야 할 것임을, 나아가 이에 따른 실천의 준비를 촉구한다.

2021. 2. 25.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